

1. 회의 개요

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원: 외교통상부

나. 일시: 2011년 7월 6일 (수) 15:00~19:00

다.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2. 주 제: “APEC 구조개혁(ANSSR) 우선순위 과제선정 논의”

3.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세 부 일 정
제 1 세션	15:00-15:10	환영사(채옥 KIEP원장) - 외교부·KIEP 공동주최 포럼 개최 축하 및 참석자 환영
	15:10-15:20	APEC 구조개혁(ANSSR) 추진 관련 배경 및 동향 브리핑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15:20-15:40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안충영 규제개혁위 위원장)
	15:40-16:40	사회: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부처별 발표(1인당 15분-20분간 분야별 구조개혁 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 - 생애주기별 여성인력 활용 확대 방안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금융규제개혁 방안 (이현석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 노동시장 분야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16:40-16:50	휴식
제 2 세션	17:00-17:40	사회: 채 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종합토론 -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할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 우선순위분야 선정
	18:00 -	만찬

4. 회의 주요 내용

APEC 신구조개혁전략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입장을 듣고 그에 대한 이해 및 APEC정상회의 어젠다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부 측 부처별 연사들과 민간 전문가들 총 21인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회원국별 구조개혁 우선추진분야를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기에 한국의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각 부처들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APEC 구조개혁은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조치로 자유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2005-2010년간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의제(LAISR)”가 5개 우선분야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

다. 작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구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자 "APEC 신구조개혁전략 (ANSSR)"를 본격적으로 SOM 차원에서 직접 주도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규제는 제도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중요한 사안이다.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우선순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랄 수 있겠다. 구조개혁의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복잡해지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규제개혁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전에 없었던 구조개혁의 초점은 금융구조의 재정건전성이 5대 핵심 분야로 선정된 것과 사회안전망 이슈와, 노동·여성·직업재교육 등 사회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고위급관리들이 직접 검토와 관리를 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한국의 기준을 잘 수립한 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다른 분야와의 확산효과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Cross-cutting issue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정과제와 부합되어야 하고, APEC의 공동이슈와 연계되면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과제가 APEC의 모범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확실한 성과지표가 제시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PEC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pathfinder가 될 것인지, 미국이 제시한 틀 안에서 회원국과 공유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미국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들이 벤치마킹으로 활용 가능한 사안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APEC 내 규제개혁 논의는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프로세스이다. 궁극적으로는 역내경제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국내(behind-the-border)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해하고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